

전남도 “백신접종자 마스크 안써도 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참여 독려·일상회복 지원

거리두기 인원 제한서 제외...요양병원 면회도

전남도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도민에게 거리두기에 따른 인원 제한을 제외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참여를 높이고 예방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6월부터 백신 1~2차 접종자는 사적모임은 물론 직계가족 8명까지만 허용하던 가족 모임 인원 제

한에서 제외한다. 경로당·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뿐 아니라 프로그램 참여도 가능해진다.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의 주기적 선제검사도 면제하고,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대면(접촉) 면회를 허용한다.

국립공원과 국립생태공원 등 주요 공공시설 입장료·이용료 등도 할인

또는 면제하고, 문화체험 이벤트도 가능하다.

7월부터는 백신 1~2차 접종자가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활동 참여 시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한다. 예방접종 완료자라면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 운영도 가능하다.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돼 마스크 없이 야외활동이 가능해진다. 다만 실외라 하더라도 다수가 모이는 집회·행사 등은 제외한다.

지난 5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는 확진자와 접촉했다더라도 음성이고 의심 증상이 없는 경우, 해외를 다녀온 후 입국 시 검역 과정에서 음성이고

의심 증상이 없으면 2주 간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있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앞으로 백신 1차 접종만 해도 가족·지인 모임 등이 가능하고 일상생활이 자유로워진다”며 “도민들께선 안심하고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현재 전남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427명이며, 지역감염 1337명, 해외유입이 90명이다. 백신 접종자는 1분기 대상자 6만6660명 중 5만 8136명(87.2%), 2분기 27만2688명 중 17만8269명(65.4%)으로 총 23만6405명이다. 김경환기자

동구 “남도김치 담글 초보주부들 환영합니다”

광주 동구 학동 마을사랑채운영협의체(이하 운영협의체)는 지난 25일 학동 마을사랑채에서 ‘초보주부를 위한 남도김치 이음교실’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운영협의체는 학동 마을사랑채에서 주민 간 소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가운데 3가지 이음교실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인 ‘아삭아삭 남도김치 담기’는 남광주해뜨는시장의 김치달인 최재호 강사를 초빙해 남도김치를 담그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날 최재호 강사와 함께 부추김치 담그는 방법과 남광주시장과 학동의 지역적 가치와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도 가졌다.

서구 ‘기후위기 대응추진단’ 출범

광주 서구는 시민단체·기업·행정이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추진단’이 출범, ‘2045 탄소중립도시’ 만들기 위해 본격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추진단은 행정·기초의원·기업·시민단체·환경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2년 간 서구의 기후 위기 대응·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자문·심의한다.

서구는 추진단 심의 내용을 토대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주민참여형 연료전지 발전 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등을 펼친다.

대기 부문에선 미세먼지 청정 관리 시범구역을 지원하고, 기후변화 대응 쿨링포그(Cooling fog) 설치·운영 등을 벌인다.

남구, 자동차 관리사업 모범사업자 모집

광주 남구는 26일 “자동차 관리사업 분야의 서비스 질 향상과 건전한 사업자 육성을 위해 자동차 관리사업 모범사업자를 공개 선발한다”고 밝혔다.

2021년도 자동차 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선정을 위한 모집 절차가 오는 6월 11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자동차 관리 분야의 서비스 품질을 높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신청 대상은 남구 관내에서 3년 이상 자동차 관리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다만 최근 2년 이내에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업자는 공개 모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북구, 마을복지계획 추진단 구성...주민 주도 복지 실현

광주 북구는 27일 북구문화센터에서 ‘2021년 동 마을복지계획 수립 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마을복지계획은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찾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며 마을에 필요한 사업들을 직접 만들고 실천하는 과정이다.

발대식에서는 허숙민 한국지역복지연구소장의 ‘마을복지의 이해와 방향’이라는 강연이 이뤄지며 마을복지의 중요성과 주민의 역할 등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북구는 올해 두암3동, 삼각동, 건국동, 양산동 등 4곳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상으로 마을복지계획 추진단을 구성해 마을복지를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광산구 노사민정 “산업재해 재발방지 협력” 다짐

광주 광산구 노사민정이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산업재해 재발방지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광산구는 26일 구청 2층 회의실에서 ‘2021년 제1차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2021년 사업계획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노사민정 역량 강화 ▲감정노동자 보호 및 지원사업 ▲산업안전 튼튼광산 조성 ▲찾아가는 노사상생 컨설팅 지원사업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하자는 뜻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임행백기자

광주·대구시장, 국토부장관에 달빛철도 의견서 제출



이용섭 광주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이 26일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과 면담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에 달빛내륙철도 사업을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영·호남 시·도지사 6명의 공동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공동의견서 제출은 지난 7일 국토교통부에서 각 시·도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통상 개별 기관별로 의견을 제출해온 관례

전례없는 ‘공동 의견서’ 영·호남 6개 시·도민 열망 표출 “대선공약, 동서화합·균형발전 위해 국가계획 반영돼야”

를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이다. 영·호남 시·도민들의 강력하고도 절박한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두 시장은 장관 면담에서 “달

빛내륙철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영·호남 시·도민에게 약속한 것으로 동서 화합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며, 영·호남 내륙은 연결철도망이 전무한 유일한 초광역 권역일 뿐만 아니라 대구·광주는 특·광역시 중 연결 철도노선이 없는 유일한 대도시”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달빛내륙철도가 건설되면 이 노선과 연결되는 경부선, 전라선, 호남선 등 국가 주요 철도망 전체의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동취재본부

광주시는 투기자본의 해양에너지 인수 반대해야

기자수첩

투기자본 맥쿼리가 광주의 독점적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해양에너지 인수에 나섰다

해양에너지는 이미 지난 2018년 ‘GS’에서 사모펀드 회사인 ‘글렌우드프라이빗에쿼티(PE, 이하 글렌우드)’로 매각된 바 있다. 글렌우드가 해양도시가스(해양에너지의 옛 사명)를 인수한 이후, 영업 이익은 2018년 165억 원에서 2019년 216억 원, 지난해 225억 원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이자 비용도 3억 원이 되지 않을 정도로 안정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글렌우드는 인수 후 3년 만에 다시 매물로 내놓은 것

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맥쿼리와 의 협상 과정에서 제시된 매각 가격은 8200억 원으로 이 가격대로 매각된다면 글렌우드는 3년 만에 2000억 원의 차익을 챙기는 셈이다.

해양에너지의 운영과 매각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안정적으로 매년 100억이 넘게 발생하는 배당 이익과 매각 때마다 수천억씩 발생했던 시세 차익이 독점자본과 투기자본의 주머니에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이 막대한 이익은 어떻게 발생한 것인가? 이것은 결국 광주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 아닌가? 이처럼 시민들의 경제 손실과 직결된 도시가스를 마냥 투기자본의 이윤 도구로 방치해도 되는 것인가?

대규모 시설 투자를 벌이로 고이윤의 돈을 차입하고, 이를 갚는다는 명분으로 가스 요금 인상을 시도할 것이다. 이윤만을 추구하는 그들의 경영 마인드는 외주화를 통한 노동자들의 고용 환경 악화로 이어질 것이다.

해양에너지의 도시가스 기반시설(가스 공급망)은 광주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소에너지에 기반한 그린뉴딜 사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향후 탄소중립



도시를 위해서는 기존 도시가스 공급망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해양 에너지를 투기자본이 아니라 광주시와 시민적 통제 하에 두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시민들의 생존과 직결된 도시가스를 투기자본의 이윤 놀음에 놀아나지 않게 하고, 시민적 이익에 바탕을 두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과 해양에너지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을 투기자본의 이익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선순환경제 시스템에 대해 숙고해야한다. 조광제기자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조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발전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절차)에 따라 태양광 발전소 시공에 대하여 주민의견 수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시설용량 : 총 1.4MW
2. 사업개시 예정일 : 2021년 12월 ~ 2022년 6월
3. 사업운영기간 : 준공 후 20년
4.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 2021년 5월 24일 ~ 2021년 6월 2일까지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108번길 9 한국광기술원 A1(본관) 7층 706호
5. 아래 주소에 태양광발전설비 인허가 및 시공을 시행 할 예정이오니 본 공고를 확인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담당자 : 이성일 (HP: 010-2570-0365, lispower@hanmail.net)로 연락주시시오.

NO.	발전소 명	사업주 명	발전소 용량 (KW)	부지 면적 (평)	비 고
1	성일 태양광	이성일	99.9	300	전라남도 나주시 봉황면 용곡리 (116-1-3, 125-1-3, 129, 172, 173, 134, 131-1, 126, 128, 167, 127, 132)
2	성일2호 태양광	김양복	99.9	300	
3	성일3호 태양광	조근성	99.9	300	
4	대방2호 태양광	홍정하	99.9	300	
5	남경2호 태양광	김종호	99.9	320	
6	포인트 태양광	전은국	99.9	325	
7	봉황 1호 태양광	노경자	99.9	340	
8	봉황 2호 태양광	배오엽	99.9	322	
9	봉황 3호 태양광	백명근	99.9	334	
10	봉황 4호 태양광	장정아	99.9	348	
11	봉황 5호 태양광	김영석	99.9	360	
12	봉황 6호 태양광	김선진	99.9	328	
13	봉황 7호 태양광	심민호	99.9	331	
14	봉황 8호 태양광	나명수	99.9	320	
합 계			1,398.6	4,528	

한정승인 공고

사 건 번 호 : 광주가정법원 2021 느단 383 상속한정승인
사 망 자 : 김진우 (970209-1300215)
최 후 주 소 : 광주 서구 월드컵4로182번길 23-1, 301호(내방동)

위 망 김진우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1년 5월 27일

공 고 인 : 김유현.
주 소 : 광주 광산구 목련로273번길 76, 103동 1202호 (운남동, 주공아파트)

한정승인수리일 : 2021년 5월 20일
공 고 기 간 : 2021. 5. 27 ~ 2021. 7. 27

한국인본인정통행민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위기를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합니다.

국민 이해당사자 지은 윤로2021년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